

홈뱅킹 “비디오포스트”를 발매

- 프랑스 -

미니텔과 우정총국의 신서비스「비디오포스트」를 사용하면 앉아있으면서 24시간 줄곧 자기의 우편저금계좌와 직접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1989년 10월부터는 자택에서 비디오포스트의 번호「3614」를 누르면 모든 우편저금계좌에 액세스 할 수가 있고 1회의 조작으로 잔고조회와 타계좌에의 불입절차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여행자수표의 주문이라든가 우체국장에게의 면회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비디오포스트는 이미 파리등 5개 도시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9월부터 3만명의 가입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렌스에서 試行해본 후 전국적으로 상품화될 예정이다.

우정총국은 우편대체계좌 포스테데파르뉴및 블루카드등 3대주요상품의 이용자는 12월31일까지는 무료로 비디오포스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비디오포스트의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

○ 비디오 포스트 · 후랏슈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당좌예금, 보통예금등 모든예금의 상황을 조사해 볼수가 있고 잔고및 최근의 거래가 표시된다. 블루카드의 이용자는 카드에 의한 지불상황도 별도의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비디오포스트 · 플러스

보통예금의 이식을 계산한다던가 개인 및 공통계좌의 양쪽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전신조회이외에 전신대체, 금융상품의 주문, 전자우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래에는 비디오포스트 · 플러스를 통해 주식정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그 용도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정 1989. 11)

*홈뱅킹 “비디오포스트”를 발매